

후성능 높여주는 고출력 배터리 ... 수명도 10년

중소기업 케이와이피가 지난 3월 내놓은 토르배터리는 리튬인산철을 사용한 자동차 배터리다. 자동차에는 보통 납배터리가 쓰이지만 일부 고성능 자동차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쓴다. 스포츠카는 무게가 가벼워야 하는데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무게가 납배터리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짧은 순간에 많은 전력을 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최기수 케이와이피 대표는 "자동차가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마다 엔진을 재점화하는 '스트앤드' 기능 등이 확산되면서 차량 배터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튜닝 시장을 기반으로 토르배터리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충전 속도 7배 이상 빨라

토르배터리는 국내 튜닝용 여섯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80만원대로 20만~30만원대인 일반 배터리보다 비싸다. 최 대표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일반 배터리보다 비싸기 때문에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찾는 튜닝용을 주요 판매처로 공략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차량에 최적화한 모델을 따로 제작해 동호회 위주로도 공급을 시작했다.

토르배터리의 장점은 우수한 방전율이다. 일반 납배터리의 방전율은 0.5~3C(쿨롱)인데 토르배터리는 25~50C다. 방전율이란 일정 시간 얼마나 많은 양의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방전율이 큰 배터리는 구경이 넓어 물이 칼날 나오는 수도꼭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최 대표는 "시동을 걸기 위해 튀기는 전기 불꽃부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펌프, 에어컨, 오디오 등 모두 배터

일반 배터리의 4분의 1 무게 1시간만 주행해도 완전 충전 튜닝용 중심으로 시장 공략

리가 만드는 전기로 작동한다"며 "배터리가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배터리만 바꿔도 차량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전이 빠른 만큼 충전되는 속도도 빨라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드는 엔진의 부하를 줄여준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 일반 납배터리는 차량을 일곱 시간 이상 연속 운행해야 완전



최기수 케이와이피 대표가 토르배터리의 장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충전되는 데 토르배터리는 한 시간만 주행해도 완전히 충전된다"고 덧붙였다.

◆추위에 강한 배터리

케이와이피는 최 대표가 2014년 설립했다. 그는 LG전자에서 15년간 품질관리 담당으로 일했다. 오랜 기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이 왔다. 평소 좋아하던 자동차 관련 사업 아이템을 찾다 토르 배터리를 내놓게 됐다. 내부에 들

어가는 배터리팩은 품질관리 경력을 살려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과 대만 업체를 찾아냈다. 최 대표는 "중국 대만과 달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강원지역 혹한기도 버티내는 배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제품을 한 번 구매했다면 자동차 수명과 함께한다고 할 만큼 수명이 10년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케이와이피는 토르배터리의 우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월의 으뜸중기 제품 △여명테크-막힘 해소 초절수 양변기 △유투-물에 빠진 벽지 △네오팜-LED 펌 밴드 △케이와이피-리튬 자동차 배터리

수성을 알리기 위해 자동차경주팀 이레인의 이동용 선수 차량에 올초부터 토르배터리를 협찬하기 시작했다. 이 선수는 지난 9월 경기 용인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GT2 클래스에서 2위를 차지했다. 케이와이피는 다른 팀원 차에도 배터리 공급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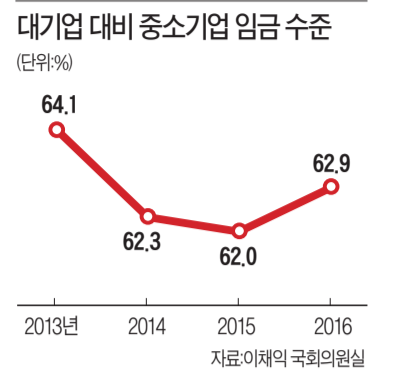
최 대표는 "주차 시에도 블랙박스 녹화를 위해 차량에 20만~30만 원대 보조배터리를 설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보조배터리 대신 토르배터리를 달면 차량 컨디션이 좋아지고 블랙박스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부=이우성 기자 idol@hankyung.com

중소근로자 임금 대기업의 62.9%

건설업은 절반 수준

지난해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체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2012년 64.1%, 2013년 64.1%, 2014년 62.3%, 2015년 62.0%, 2016년 62.9%로 5년째 큰 차이가 없었다. 이 통계는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했다.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총액은 302만1208원으로 대기업(585



만8544원)의 51.5%에 그쳤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각한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우성 기자 idol@hankyung.com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지역별 격차 심해

전남·경북, 서울의 10분의 1

미숙아나 중증 질병에 걸린 신생아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신생아 집중치료(NICU) 병상 확보에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울산이 출생아 1000명당 필요한 NICU 병상 수 3.9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0.7

개로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과 경북은 병상이 가장 많은 서울(7.1)과 열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40만6243명 중 몸무게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9%인 2만3829명,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7.2%인 2만9414명에 달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각각 5.5%, 6.5% 증가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3년 31.8세에서 지난해 32.4세로 높아졌고 난임부부도 2013년 20만 명에서 지난해 22만 명으로 늘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100년 기업 채비 끝낸 삼성제약... "2020년 매출 1000억"

김기호 삼성제약 대표 "올해 흑자 전환 예상"



'까스명수' '쓸기담' 흥행 이슬 8중 복제약 올해 출시 예정

화 작업에 들어갔다. 2013년 329%이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68%까지 낮아졌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2013년 469억원이던 매출이 2014년에는 303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482억원으로 개선

됐다. 김 대표는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로 구조조정을 마쳤고, 부실 거래처도 정리해 영업 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삼성제약이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동안 제약업계는 복제약(제네라)과 개량신약 중심으로 재편됐다. 변화를 시작한 삼성제약도 비노기계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8종의 복제약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2013년 1%대이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현재 7%대까지 올라왔다. 그는 "위상 강화를 위해 까스명수, 쓸기담 등 대표 제품의 신제품 출시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7월까지 '리스타트 2020'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2020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구개발을 통한 복제약의 본격적인 출시도 실행방안 중 하나다. 연간 20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2년간 150억원을 투자한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 두 곳과 제품 검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제형은 지금까지 국내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사업에서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캄보디아에 까스명수 등 일반의약품 여섯 종을 수출한 이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귀뚜라미 'IoT가스보일러'



귀뚜라미대표 강승규는 보일러 성능을 맞아 고급 사양을 대거 적용한 '귀뚜라미 IoT 콘덴싱 가스보일러(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사물인터넷(IoT), 콘덴싱, 저탄소,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1등급, 가스 및 지진 감지 안전 기술 등 귀뚜라미의 최고급 사양을 모두 적용했다"며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온, 오프, 24시간 예약은 물론 각종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보일러가 스스로 소비자의 사용 습관을 학습해 최적화된 보일러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모십니다

국내 첫 국제복합소재전시회 열립니다

(JEC Asia Seoul 2017)

첨단 복합소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Seoul 2017)'가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복합소재 전시 및 네트워킹업체인 JEC그룹이 주최하며 도레이, 아케마, 솔베이, 마이(MAD)카본 등 200여 개 기업 및 기관, 대학 등이 제품을 전시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국내 유일할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부대 행사로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을 비롯해 각종 콘퍼런스와 기업 간 상담회도 열립니다. 한경닷컴

(event.hankyung.com)에서 사전 등록하면 전시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각종 콘퍼런스도 할 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2017년 11월1~3일 ●장소: 서울 코엑스 ●참가 기업: 효성 한화 첨단소재 코오롱 한국카본 도레이 아케마 등 국내외 200여 개사 한국경제신문사는 국내 유일할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부대 행사로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을 비롯해 각종 콘퍼런스와 기업 간 상담회도 열립니다. 한경닷컴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탄소융합기술원, 서울시, 전주시 등 기관 파트너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재료연구소, 복합재료학회, 생산기술연구원 등 미디어 파트너 : 한국경제신문

문의 02.2634.7727 www.kmvalley.kr

제2회 문래머시닝밸리 시제품제작 상담 및 전시회

2017년 10월 25일(수)~27(금)
OPEN_10:00, CLOSE_18:00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31(문래동 2가 21-3)

전시회 프로그램 ※ 전시기간 동안 제작 전문가가 상시 대기하여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10.25 (수)	10:00~10:50 전시회 오픈 행사
	11:00~12:00 시제품제작대응팀 토크콘서트 '성공하는 시제품 제작'
10.26 (목)	14:00~15:00 아이디어 토크콘서트 '개발자가 묻는다'
10.27 (금)	16:00~18:00 문래소공인명기술대회

전시회 참가객 및 상담자에게 '문래머시닝밸리 e-book'이 담긴 USB를 증정합니다.

주최

주관

아이디어, 기술을 입히다